

# 러시아혁명의 대서사시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



『고요한 돈강』의 초판본(아래)과 개정판본(일월서각)

그 때 러시아는 어떤 나라였나? 그 나라는 온통 눈이었다. 집도 마을도 별판도 온통 눈뿐인 그 눈 천지 속에 시인이 있었다. 시인은 잠을 자다가 문득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건 텃없이

흘러가 버린 기억의 문을 여는 빗장이었다. 시인의 마음은 갑자기 까담모를 환희에 젖는다. 그리고 그 환희의 순간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책상 밑에 앉는다. 먼지를 닦고, 창문의 성에를 지우고, 그리고 깃털 펜에 잉크를 찍어 한 자 한 자 조심스럽게 적어내려 간다. 라라…… 그리운 이름. 그것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이름. 아니, 생의 충만한 허무를 메워줄 마지막 절대적인 이름!

그랬다.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감히 비집고 들어가 내 상상의 더듬이로 훑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던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넘어서면, 거기,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코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의학도 시절에 처음 만난 여인 라라가 있었다. 나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단체 관람을 가서 그 두 사람을 처음 만났다. 그 후 세 번 네 번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는 동안 파스테르나크의 러시아는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메울 수 없는 깊이로 제 영토를 새겨 넣었다.

## 파스테르나크의 러시아

그 영토는 70년대와 80년대가 교차하는 세월의 길목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회의하는 인간의 전형, 파스테르나크와 시인 지바코를 입 밖에 낼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운동권의 선배가 되어 있었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우리 서클에서 내가 맡은 것은 문학이었다. 문학이되, 어쨌든 운동에 복무하는 문학이어야 했다. 그 문학은 “문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모순의 방식으로 모순의 세계를 폭로한다” “문학은 존재 자체로 강고한 현실에 흠집을 내는 영원한 추문(스캔들)”이라는 모더니스트들의 교묘한 수사를 박살낼 수 있는 문학이어야 했다. 아아, 목표는 분명한데, 어디 그게 쉬운가.

작품이 있어야 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저 ‘교활한’ 입을 꼼작 못 하게 만들 작품!

그때 마침 미군의 용병(카투사를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으로 간 친구가 나를 불렀다. 용산의 미 8군 도서관, 그곳이 보물창고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 없는 것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 어찌어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과연 듣던 것이 상이었다. 거기에는 특히 마오의 중국혁명에 관한 책이며 난공불락이라던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궤멸시킨 베트남의 영웅 보 응웬 지압 장군의 전술 전략서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1급 금서들이 빼곡하게 책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빌려갈 수 있다는 것. 나는 아마 다시 한번 미국의 충격적인 힘의 실체를 절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책들을 빌려올 용기는 없었다. 무엇 다른 것이 없나 훑어보던 내 눈이 어느 순간 번쩍 떠졌다. Quiet Flows the Don!

소문으로만 듣던 책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 살다가 해방 이후 월남한 까마득한 선배 작가들로부터 아마 처음 그 이름을 얼핏 들었을 것이다.

“굉장하지. 차원이 달라.”

그때 그 말을 하던 작가들의 삶도 파란만장한데, 그들이 감탄에 감탄을 거듭한다면? 물론 나는 그 책을 한 장도 읽지 못했다. 하지만 그 책이 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모

더니스트들의 문학주의적인 상상력을 단번에 깨뜨릴 핵무기를 손에 넣은 양 흥분했을 터. 그로부터 몇 년 후에야 나는 비로소 솔로호프의 대하소설 『고요한 돈강』(장문평, 남정현 외 옮김, 일월서각, 1985)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순수니 참여니 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리얼리즘 문학을 말할 때나 현대 서양문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전이다.”(백낙청)

“이 작품은 1917년 이후의 시, 소설, 희곡 등을 총망라한 소련문학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걸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호철)

일어 번역판을 판본으로 한 번역본이라 어찌 좀 영성한 구석이 많았지만, 꿈틀거리며 거칠게 흘러가는 돈강을 묘사한 첫 장면부터 나는 사이렌에 이끌리는 울리시즈처럼 어떤 압도적인 힘에 빨려 들어갔다. 한번 잡으면 밤을 새우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권을 읽고 나서는 아마 나도 몰래 길게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마침내 일곱 권이나 되는 책을 정신없이 읽어치웠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니, 고요한 돈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화가 임옥상의 다음과 같은 회상에는 차라리 기가 죽는다.

“1986년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휘몰아치는 민주화의 격랑에 여장을 풀 겨를도 없이 휩쓸렸다. …… 무서운 불길이었다. 전율의 나날이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나를 잡아둘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속에서 미하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도서출판 빛샘 등 발행)을 만났다. 홍명희의 『임궏정』도 당시 함께 읽었지만 나는 『고요한 돈강』이 더 좋았다. 둘 다 금서의 목록에 들어있던 책들이다. 『고요한 돈강』은 나를 엄청난 상상의 공간으로 끌고 갔다. 유럽 여기저기

를 대중은 다 여행했었지만 당시는 아직 러시아를 갈 수 없었기에 더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활자 하나하나에 감각기관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했다. 안개 낀 돈강, 범람하는 돈강, 전쟁 소용돌이 속의 돈강, 애절한 비련의 돈강, 끊임없이 흐르고 흐르는 세월의 돈강. 나는 돈강에 표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궁 속에 품긴 듯 포근히 잠들기도 하며 끝없는 상념에 상념을 키우며 책에 빠져 들었다. 조국애에 달뜨기도 하고 혁명에 뛰어들기도 하며, 나의 현실과 책 속의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나는 돈강의 주인공이었다.”(한국일보, 2002년 6월 28일)



1957년 구 소련에서 영화로 제작된 『고요한 돈강』의 포스터

무슨 말을 더 하랴.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한없이 서정적이던 파스테르나크의 러시아가 송두리째 뒤집혀졌다. 그 새로운 러시아는 인간과 대지와 역사가 어우러져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솔로호프의 러시아였다. 무엇보다 그 러시아에는 주인공 멜레코프와 아크시냐의 지극히 동물적인 사랑과 안나와 분츠크의 혁명의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절묘하게 뒤섞여 있어, 젊은 내가 충분히 흥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솔로호프의 러시아

솔로호프는 20세기를 뒤흔든 거대한 혁명을 그리되, 결코 교과서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는 혁명보다는 오히려 코사크의 반혁명, 배반, 탐욕, 정염, 시기, 질투, 모멸을 더 상세하게 그려냈다. 이 소설이 위대한 점은 아마 이 점에 있을 것이다. 그는 혁명의 대의를 믿었지만, 그 경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추악한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요한 돈강』을 읽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 소련이 무너졌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 경직된 이념의 노예였던 나는 하루아침 길을 잃은 양이 되었다. 심지어

얕박한 반혁명에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이미 대세는 ‘해체’였다. 나는 내 젊은 날의 꿈을 일단 접어야 했다. 서울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면서 많은 책을 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고요한 돈강』을 버리지 않았다. 언제 다시 그 돈강의 거친 물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었지만, 결코 그런 시절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책은 영원히 내 영혼의 앨범을 장식하고 있으리라, 나는 생각했다.

미하일 솔로호프는 1965년 이 작품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의 압력으로 수상을 포기해야 했고, 그 후 일생을 돈 근처의 한 농장에서 보내다가 1984년 사망했다.

#### 김남일 (소설가)


- 1957년 경기 수원 출생
-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학>에 단편 『배리』로 등단
- 장편소설 『청년일기』 『국경』 (전 7권), 작품집 『일과 밥과 자유』 『천하무적』 『세상의 어떤 아침』, 장편동화 『떠돌이 꽃의 여행』과 평전 『김상진』을 집필
-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계간 『실천문학』 주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회장 역임

# 『역사 다시 보기』 동영상을 웹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kdemocracy.or.kr](http://www.kdemocracy.or.kr)  
[www.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r](http://www.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r)  
[www.민주화.kr](http://www.민주화.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시면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 문의전화 : 02-3709-7500    • 이메일 : [webmaster@kdemo.or.kr](mailto:webmaster@kdemo.or.kr)